

“자살골 부탁해” VS “살살 다뤄줘요”



〈박지성〉

박지성-이청용 내일 새벽 첫 맞대결 ‘관심 집중’

한국의 축구스타 박지성(29·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이청용(22·볼턴)의 첫 맞대결이 기대된다.

최근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주목 받는 두 선수의 맞대결에 영국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더 타임스’, ‘더 선’ 등 주요 매체는 맨유와 볼턴이 펼칠 맞대결의 관전 포인트로 박지성과 이청용을 꼽았다. 이들은 박지성을 스승, 이청용을 제자에 비유하며 한국 축구 최고의 스타와 떠오르는 스타의 대결이 갖는 의미를 설명했다.

두 선수는 한국 시간으로 오는 28일(한국 시각) 새벽 2시 30분 리버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볼턴과 맨유의 리그 32라운드에서 맞설 가능성이 크다. 통산 11번째의 ‘EPL 코리아 Derby’가 될 이들의 맞대결은 벌써부터 수많은 국내 축구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박지성과 이청용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있었던 양팀의 맞대결에서 이청용은 선발 출전해 후반 7분 교체되어 나갔지만 박지성은 당시 부상으로 출전 명단에 들지 못했다.

이번엔 맞대결 성사 가능성이 높다. 일단 첫 해부터 볼턴의 에이스로 입지를 굳힌

이청용은 선발 출전이 확실하다. 박지성은 최근 3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기록한 기세를 감안하면 선발 출전 확률이 높다.

두 팀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경기이다. 최근 5경기에서 3승을 거두며 승점 32점으로 순위를 14위까지 올리며 강등권에서 탈출한 볼턴이지만 잔류를 장담하기 위해선 최소 승점 3점에서 6점 정도가 더 필요하다.

선두 싸움이 한창인 맨유도 놓칠 수 없는 게임이다. 2위 첼시와 3위 아스널이 각각 승점 1, 2점 차로 바짝 쫓고 있기 때문이다. 승리를 목표로 경기에 나서게 될 박지성과 이청용은 이번 맞대결을 앞두고 서로 농담을 주고 받았다.

이청용은 에버턴전이 끝난 뒤 “지성이 형이 살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남겼다. 자신들의 홈에서 승점을 주고 가라는 애교 섞인 부탁이었다.

리버풀전이 끝난 뒤 이청용의 농담을 전해 들은 박지성은 “볼턴은 강등권을 탈출했다고 본다”면서 “오히려 우리가 우승 경쟁에 치열한데 청용이가 자살골을 한 골 넣길 바란다”라며 되받아 쳤다.

한국축구의 ‘쌍두마차’가 벌이는 한판 승부가 기대된다. /김여울기자 wool@



〈이청용〉

동신여고 정구 회장기 4연패 순천여고 3-0 제압

광주 동신여고 정구팀이 제31회 회장기 전국정구대회 정상에 오르며 대회 4연패의 대기록을 세웠다.

동신여고는 25일 경북 문경시민정구장에서 열린 대회 여고부 단체전 결승에서 순천여고(A)를 3-0으로 가볍게 제압하고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이로써 동신여고는 지난 2007년 대회부터 정상의 자리를 굳게 지키며 ‘여고부 최강’을 과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회장배·장원배·대통령배 대회를 휩쓸며 3관왕에 올랐던 동신여고가 올해도 다관왕을 향한 상큼한 출발을 보였다.

이날 첫 경기인 복식에서 국가대표인 임수민(3년)-최미란(2년)이 시종 여유있는 경기를 펼쳐 순천여고 서초이 조를 4-2로 누르고 기선을 제압했다. 이어 열린 단식에서 임수민은 상대 채예리를 접전 끝에 3-2로 꺾고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3세트 복식에 나선 김지연과 김이주(이상 1년)는 패기를 앞세워 안지애-채예리 조를 누르고



동신여고 정구팀이 25일 경북문경시민정구장에서 열린 제31회 회장기 전국정구대회 결승에서 순천여고(A)를 꺾고 우승했다. (동신여고 제공)

경기를 마무리 지었다.

동신여고는 전날 열린 준결승에서 경북

관광고를 3-0으로 이기고 결승에 올랐다.

동신여고 이화복 감독은 “지난 겨울훈련 동안 체력단련에 주력했던게 우승에 큰 힘이 된 것 같다”면서 “올해도 선수들 대부분

이 고른 기량을 갖춰 좋은 성적이 기대된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한편 남고부 경기에서는 동신고가 준결승에서 강호 순천 매산고에 1-3으로 져, 아쉽게 동메달에 그쳤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F1과 잘 어울리는 아이돌을 찾아라”

KAVO 스타찾기 이벤트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포틀랜드 원(F1) 코리아 그랑프리 대회 운영법인인 KAVO가 티켓 오픈 기념 온라인 행사를 연다.

KAVO는 “31일 코리아 그랑프리 티켓 오픈을 기념해 28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www.koreangp.kr)를 통해 ‘F1과 어울리는 아이돌 스타 찾기’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국내 대표 아이돌 그룹 가운데 F1의 이미지와 어울리는 팀 하나를 선정하는 것으로 음모자 가운데 50명에게 경품을 선물한다. 당첨자에게는 31일 F1 코리아 그랑프리 티켓 오픈 기념행사인 그랜드 오픈 페스타 입장권을 준다. /연합뉴스

첼시 “우승 포기못해” 맨유 압박

드로그바 2골…아스널 제치고 2위 탈환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강호 첼시가 ‘검은 폭격기’ 디디에 드로그바를 앞세워 포츠머스를 완파하고 2위 자리를 탈환했다.

첼시는 25일(한국 시각) 영국 포츠머스의 프라텐파크에서 열린 포츠머스와의 2009-2010 프리미어리그 31라운드 원정경기에서 드로그바와 플로랑 말루다가 두 골씩을 넣고 프랭크 램파드가 한 골을 보태면서 5-0 승리를 낙착했다.

3경기 연속 무패(2승1무) 행진을 벌인 첼시는 시즌 21승5무5패(승점 68)로 아스널

(승점 67)을 3위로 끌어내리고 2위로 한 계단 올랐다. 또 선두 맨유(승점 69)를 승점 1점차로 바짝 추격하며 리그 우승 희망을 이어갔다.

이날 두 골을 수확한 드로그바는 시즌 24호골로 리그 득점 선두인 웨인 루니(맨유·26골)와 간격을 두 골차로 좁혔다.

한편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에서는 FC 바르셀로나가 누캄프에서 열린 오사수나와 홈경기에서 후반 28분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의 선제골과 후반 43분 보얀 키르키치의 추가골을 앞세워 2-0으로 이겼다.

바르셀로나는 시즌 22승5무1패(승점 71)로 한 경기를 덜 치른 레알 마드리드(승점 68)를 제치고 선두로 나섰다. /연합뉴스

기성용 한달만에 선발

60분 소화…팀은 대패

한국 축구대표팀의 중앙 미드필더 기성용(21)이 소속팀 셀틱에서 한 달 만에 선발 출전해 후반 중반까지 뛰었다.

기성용은 25일(이하 한국 시각) 스코틀랜드 세인트 미렌파크에서 벌어진 2009-2010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미렌과 원정경기에서 선발로 나와 60분을 소화했다. 기성용이 선발 출전한 것은 지난해 21일 던디 유나이티드와 프리미어리그 홈경기 이후 처음이다. 이후 컵대회 1경기를 포함해 4경기에서는 교체요원으로 벤치를 지키거나 후반 중반에 교체 투입됐다.

기성용은 미드필드에서 활발히 움직이면서 몇 차례 프리킥과 코너킥을 때렸으나 이렇다 할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셀틱은 이날 앤디 도넬과 스티븐 톰슨에게 두 골씩 내줘 0-4로 대패했다. /연합뉴스

“부상 완쾌” 박주영 펄펄

모나코 프랑스컵 4강 진출

허벅지 부상에서 벗어난 박주영(25·모나코)이 풀타임 출전한 가운데 팀은 연장 접전 끝에 프랑스컵 4강 진출에 성공했다.

모나코는 25일(한국 시간) 새벽 모나코 루이 2세 경기장에서 FC소쇼와 치른 프랑스컵 8강 홈 경기에서 3-3으로 평행한 접전을 펼치던 연장 전반 4분 무사 마조의 결승골이 터지면서 4-3으로 승리했다.

지난달 허벅지 근육을 다쳤던 박주영은 지난 21일 그르노블과 정규리그 경기에서 이어 두 경기 연속 최전방 공격수로 출전, 비록 공격포인트를 챙기지 못했지만 연장전을 포함해 120분을 뛰면서 부상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증명했다.

박주영은 연장 전반 막판 미드필드 지역 중앙에서 최전방의 마조에게 날카로운 킥패스를 내렸지만 골키퍼가 먼저 거둬내 골로 이어지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연합뉴스

농어촌공 전남본부, 지역 필드하키 후원 나선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종원)와 광주, 담양, 무안·신안 지사 등 3개 지사가 각 지역내 학교의 하키부 후원에 발 벗고 나선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24일 본부 소회의실에서 ‘하키부 활성화를 위한 자매결연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에 따라 전남지역본부는 광주제일고, 광주지사는 광주여고, 무안·신안지사는 목포중앙여중, 담양지사는 담양중 등 하키부를 두고 있는 학교들과 교류·협력·후원에 나선다. 또 공사는 자매결연 학교 선수들이 전국 규모 대회 참가시 응원 및 선수단 격려, 하키의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위한 씨포터즈 활동, 하키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

김종원 전남지역본부장은 “하키부를 운영하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학교와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지역 청소년 하키자본 확대와 꿈나무 선수 육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송기창기자 song@

무등산 문빈정사 납골당 허가번호 : 제2006-1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심터

무등산 문빈정사

극락전 납골당이 있습니다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 후손들의 무관심과관리소홀** 범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때가 벗겨진 묘, 동정기를 거머쥐며 붕괴된 묘, 개인이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 의식 및 친족, 이웃간의 상호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연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비싼 자연재해로 인한 유실과 훼손** 여름철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묘지 유실과 훼손은 전국적으로 해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묘지유실은 물론이고 심지어 시신마저도 유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봉분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시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장례법** 초소를 멀리 떨어진 산에 모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납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빈정사 주지 합장

근대한국불교조계종 무등산 문빈정사 납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 062)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

무등빌딩임대

• 최상의 업무지역,
• 금융지역,상업지역
• 지하철역세권
• 신형 주차시설 완비
• 중앙공급식 냉·난방
• 탁월한 무등산 조망권

• 면적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 용도:사무실,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제 40기 결산공고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2009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자		부	
1. 유 동 자 산	27,459,656,369	1. 유 동 부 채	1,472,881,337
가. 당 처 자 산	27,425,289,909	미 지 급 금	446,597,719
현금및현금성자산	1,028,928,569	미 지 급 비 용	507,436,150
단기투자자산	22,008,700,000	선 수 금	80,822,120
매 출 채 권	8,905,197,022	대 수 금	414,474,275
대 손 충 당 금	△39,051,070	선 수 수 익	35,276,388
미 수 수 익	126,405,878	이연법인세부채	7,974,711
미 수 수 익 이연법인세부채	189,490,580		
선 급 금	45,780,089		
선 급 비 용	17,526,001		
선 급 법 인 세	150,426,140		
나. 제 고 자 산	34,366,460	2. 비 유 동 부 채	605,277,807
저 장 금	34,366,460	회계급이자충당부채	5,970,052,680
		국민연금준비금	△100,470,900
		회계급이자충당부채	△5,264,904,053
		무 채 총 계	2,077,859,844
자 산 총 계	40,406,070,441	자 본 총 계	2,077,859,844
가. 비유동자산	12,948,414,072	1. 자 본	800,000,000
부 투 자 자 산	1,336,882,649	보 통 주 자 본 금	800,000,000
상 기 투 자 자 산	1,336,882,649		
나. 유 동 자 산	10,946,175,949	2. 자 본 이 여 금	7,323,839,550
보 통 자 산	8,541,300,080	기 타 자본잉여금	7,323,839,550
불 구 속 금	4,201,155,585		
감가상각누계액	△2,059,625,786		
구 축 금	62,410,000		
제 차 시 실	△24,123,667		
감가상각누계액	905,403,178		
기 타 기 구	△876,503,201		
감가상각누계액	9,301,948,781		
제 차 비 용	△8,289,349,485		
감가상각누계액	501,996,046		
차 함 로 반 구	△875,889,494		
감가상각누계액	277,474,580		
감가상각누계액	△253,694,815		
비 용	755,390,785		
감가상각누계액	△641,706,628		
다. 기타비유동자산	1,063,345,474		
보 통	680,588,992		
이연법인세자산	382,756,482		
자 산 총 계	40,406,070,441	무 채 와 자 본 총 계	40,406,070,44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6일

여수문화방송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송인근

위 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제 40기 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한국의 일반회계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현업회계법인 대표이사 공인회계사 권 승 화